

이덕일의 '역사의 창'



유권자의 선택

1949년 6월 26일 육군 소위 안두희는 경교장을 찾아가 백범 김구를 저격했다. 그간 누가 안두희를 사주해 백범을 암살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들이 있어 왔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 사주 했는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시점에서 왜 백범을 암살했는가라는 점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듬해 치러질 제2대 총선에 백범이 이끄는 한독당, 즉 한국독립당이 참여하기로 비밀리에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 백범 암살이 가져올 숭한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암살이란 극단적 방법을 택한 배경이 1950년의 제2대 총선이라는 새로운 견해다. 만약 백범이 이끄는 한독당이 당론으로 총선에 참여한다면 정치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혁명기나 통일운동가로서는 모르겠지만 백범이 1948년 5월 10일 치러졌던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불참한 것은 정치가로서는 약수였다. 200명을 뽑는 제헌국회 선거에서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독립촉성중앙회는 177만5000여 표로 26.1%

를 득표하면서 55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고, 미 군정 내내 사실상 여당이었던 한민당은 91만6000여 표로 13.5%를 득표하면서 29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대한독립촉성중앙회와 한민당을 합쳐도 39.6%에 불과했다.

그럼 제헌국회의원 선거의 승자는 누구였을까? 무소속이었다. 무소속은 274만5000여 표로 40.3%를 득표하면서 85명을 당선시켰다. 이때 당선된 무소속 중에는 개인 자격으로 출마한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적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출마한 독립운동가 출신들에게 대거 표를 몰아주었던 것이다.

김구가 이끄는 한독당이 제헌국회 선거에 참여했다면 1당이 되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이유다. 그래서 한독당의 제2대 총선 참여는 이승만 등의 집권 세력에게 약제가 될 것이 틀림없었다. '동아일보' 1949년 8월 10일 자가 '안두희 사건 계기로 한독당 탈당자 속출'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백범 암살은 한독당의 집권을 무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1950년 5월 30일

의 제2대 총선에서 큰 이변이 발생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독립촉성중앙회를 비롯한 보수정당들이 모두 참패하면서 29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미 군정 내내 사실상 여당이었던 한민당은 91만6000여 표로 13.5%를 득표하면서 29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대한독립촉성중앙회와 한민당을 합쳐도 39.6%에 불과했다.

사실상 집권당이었던 대한독립촉성중앙회가 얻은 득표수 47만3000여 표는 득표율 6.8%였다.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당이 6.8%를 득표했다는 것은 전 세계 선거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다. 민주국민당도 마찬가지로 68만3000여 표로 9.8%에 불과했다.

제2대 총선에서도 승자는 무소속이었다. 무소속 중에 한독당 출신들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 유권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施政) 2년을 표로써 준엄하게 심판하면서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민족정기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소속에 표를 몰아주었던 것이다. 제헌국회 선거 때는 유권자들이 무소속을 선택

하는 것으로서 미 군정 때의 여당이었던 한민당을 탄핵했다면, 제2대 총선에서는 역시 무소속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2년을 심판했던 것이다.

우리는 교육 정도가 낮았던 당시 유권자들이 지금보다 정치 수준이 낮았을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지만 이는 큰 착각에 불과하다. 유권자들이 만든 이런 정치 지형이 불과 한 달 후 북한이 남침하면서 크게 왜곡되었을 뿐이다. 외세에 의한 분단이 민족상잔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모든 정치 상황을 압도하는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 괴력을 발휘한 것이었다.

지역감정 조장은 물론 '총복'이니, 운동권이니 하는 작금의 색깔론도 모두 이분단 체제에 기생하는 구호에 불과하다. 이번 총선의 유권자들은 60여 년 전의 유권자들처럼 지난 집권 과정을 평가하고 미래의 주도 세력을 선택하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이번 총선이 그런 정상적인 선거로 가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며칠 후면 곧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가림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벚꽃 주의보



조철웅 밝은광주안과 원장

먼지 농도는 평상시 농도의 29배에 이른 다. 더욱이 황사에 들어있는 석영(광물가루), 알루미늄·구리·카드뮴 같은 중금속 성분이 결막에 염증을 유발하기 쉽다. 꽃가루의 경우 대부분 알레르기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만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집 먼지진드기, 곰팡이, 먼지, 동물의 비듬 같은 수많은 이물질이 외부 항원으로 작용한다.

외출 후 눈이 붓고 가렵거나 충혈, 통증이 생긴다면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성 결막염일 가능성이 높다. 또 평소보다 눈곱이 자주 끼고,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눈에서 나온다면 결막염을 의심해야 한다.

눈이 가렵다고 심하게 비비면 결막이 물집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의 경우 심한 경우에는 각막 궤양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한층 주의해야 한다.

가려움이 심할 경우에는 절대 눈을 비비지 말고 인공 눈물을 넣어 눈을 씻어주는 것이 좋으며, 얼음으로 냉찜질을 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다.

간혹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충혈되거나 부을 경우 눈을 가리기 위해 안대를 착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증상을 더욱 부추일 수 있어 삼가야 한다. 안대 안쪽 거즈가 분비물에 오염돼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예방은 당연한 말이지만 깨끗이 씻기, 안대 사용, 안대 안쪽 거즈가 분비물에 오염돼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출할 경우에는 선글라스 등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수시로 인공눈물을 넣어 씻어줘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 각종 먼지가 눈에 들어왔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져 안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이 때문에 최대한 렌즈 착용을

줄이거나 더욱 깨끗이 세척해주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눈 건강에 좋은 대표 영양소인 루테인이 포함된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돼 알레르기성 질환의 예방이 가능하다. 루테인은 최근 영양제로도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음식으로 섭취가 어렵다면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도 눈의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이중 비타민B12는 눈 초점 조절 회복 기능을, 비타민 B6는 눈의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깨끗하게 씻는 다 해도 눈을 자주 문지르지 말아야 한다. 습관적으로 눈을 문지르다 보면 결막염에 쉽게 걸리는 것은 물론 눈 주위 혈관이 터지면서 점차 눈꺼풀과 눈 주위가 그늘져 보여 미관상 좋지 않다.

불철 안질환은 다른 질환처럼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눈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예방이 가능하다.

실제로 광주지검은 4·13총선에 대비해 지난 2월 공안부 검사 증원과 수사과 직할 전원을 선거 범죄 단속대에 투입하는 등 총력 체제에 들어갔다. 또 농촌이 많은 지역 특성상 선물이나 금품·음식을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의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광주지검의 선제적 단속으로 선거사범이 감소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운동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끝까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과 후보자의 공정한 피선거권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사범을 추적해 엄벌하는 한편 남은 기간 동안 기존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 SNS를 통한 여론 조작과 흑색선거 등 신종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기고

물순환 선도도시



박영석 광주시 환경생태대국장

는 것이 따로 있었다'라고 기술돼 있다. 인왕산에서 흐르는 물을 백호수라 하고 삼정동 뒷산에서 흐르는 물을 청룡수, 남산에서 흐르는 물을 주작수라 하여 가려서 물 독대에 저장했다. 그리고 장을 담그는 데는 청룡수, 약을 달이는 데는 백호수, 머리를 감는 데는 주작수를 사용하는 등 동서남북 방위별로 용도를 분류해 사용했다.

이렇듯 정부는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약 22조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을 내세워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에 친환경 보를 설치하고, 하천의 저수량을 늘리는 물관리 정책을 통해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물관리 정책을 시행했다.

지금 전 세계는 엘니뇨 현상 등 이상기후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기후 현상이 불안감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강수량과 강수의 패턴이 안정적이지 않아 가뭄 및 홍수 등 수자원관리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물부족의 심각성을 경험하고 있다. 2015년 다목적댐 평균 강수량이 846mm로 예년의 3분의 2에 불과해 17개 다목적 댐

중 9개 댐이 저수량 부족 탓에 봄 가뭄이 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부가 자연적인 빗물 흐름을 관리하는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통해 가뭄, 홍수, 지하수 부족,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물 순환선도' 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물 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율적인 물순환 관리목표를 설정해 빗물 유출 저감 시설 설치와 함께 물 순환을 회복하는 도시를 조성한다. 저영향개발은 도시개발 사업 단계에서부터 자연의 물순환에 영향을 최소화 해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 유출수를 줄여 자연상태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는 기법이다.

서울시는 2014년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를 제정해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구체화 하고 관공단지 개발사업 등 44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빗물관리를 이행토록 했다.

현재 전국 주요도시의 불투수 면적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수계와 임계제를 제외하면 전 국토의 22.4%가 불투수 면이다. 서울시가 55.4%, 경기도 수원시가 49.3%, 목포가 46.3%이며 우리시는 27.03%이다. 특히 광주천 유역은 46.9%가 불투수면으로 조성돼 있다. 이런 불투

수면에 대해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드는 보도블록, 나무와 풀 등 식물로 만들어진 수로, 빗물 정화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이 검토돼야 할 시점이다.

물 순환 선도도시가 조성되면 빗물이 오염물질과 섞이는 비점오염이 줄어들어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 뿐 아니라 집중호우 등에 따른 도시침수 및 장기적으로 가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이 될 것이다. 도시의 생태회복은 물론 시민정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운장현 광주시장도 생태환경보원을 위해 물관리 정책을 주요 시책과제로 선정, 시민의식제고와 더불어 물 순환 선도도시를 조성한다는 입장이자, 이를 위해 시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순환 선도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환경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의 연계체계 및 지방정부차원의 환경, 수질,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러한 물관리에 대한 선도적인 노력은 광주시가 생명의 도시로 나아가는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社說

막판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을 경계한다

선택 4·13 D-6

4·13 총선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광주·전남에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어제 솔깃한 공약을 내놓았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직접 나서 삼성의 미래차 산업을 광주에 유치해 5년간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시하겠다”는 방안도 곁들였다. 삼성이 투자를 결정하면 더민주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더민주 같은 큰 정당만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곧장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특정기업의 이전이나 공장 유치 등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5공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 대변인은 ‘선거 1주일 전에 급조된 선심성 공약’이라며 ‘민심이 떠나자 선물 보따리를 풀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고 맞받아쳤다. 삼성전자 역시 더민주의 공약과 관련 “전장(電裝 :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전자, IT장치)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거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어 기업으로서도 조심스러운 수밖에 없는 처지일 것이다.

세계적인 대기업의 유망 사업을 유치해 지역인 고용을 크게 늘리겠다는 발상이야 쌍수로 반질 일이다. 하지만 현재 지역 판세를 감안한다면 더민주가 표심을 자극해 반전을 노리려 한다는 시각도 전혀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더민주의 제안 말고도 각 정당이 내걸었던 청년 고용활당제, 청년 취업지원 수단, 최저임금 인상안 등은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재원이 필요해 포플리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역대 선거에서도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관건인 셈이다.

선거사범 감소 추세 끝까지 이어지기를

20대 총선 선거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오히려 선거사범은 19대 때보다 줄었다고 한다.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총선을 10일 앞둔 시점이었던 지난 3일 광주지검 관내(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 제20대 총선 관련 입건 인원은 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에 치러진 19대 총선 D-10일 기준의 72명에 비하면 27.8% 감소한 것이다. 특히 선거사범이 29.3% 늘어난 전국적인 추세와 비교할 때 광주·전남의 27.8% 감소는 괄목할 만한 수치다.

선거 관계자들은 뒤늦은 선거 일정과 시민의식 개선,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 등을 감소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의 강한 의지와 단속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광주지검은 4·13총선에 대비해 지난 2월 공안부 검사 증원과 수사과 직할 전원을 선거 범죄 단속에 투입하는 등 총력 체제에 들어갔다. 또 농촌이 많은 지역 특성상 선물이나 금품·음식을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의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광주지검의 선제적 단속으로 선거사범이 감소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운동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끝까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과 후보자의 공정한 피선거권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사범을 추적해 엄벌하는 한편 남은 기간 동안 기존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 SNS를 통한 여론 조작과 흑색선거 등 신종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요즘 가장 뜨거운 뉴스는 아무래도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일 것이다. 입후보자들은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과 직접 대면을 늘리기 마련이지만 평소엔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을 알린다. 그 중에서 활자 매체인 신문은 신뢰성과 보편성이 높아 아직도 선호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유럽에선 ‘정치인과 파리는 신문지로 잡는다’는 유머가 있을 정도로 신문의 파워가 막강했던 적이 있었다. 국내 거물급 정치인들도 대다수는 신문을 즐겨 읽는다. 역대 최고

신문의 향기

의 신문광은 김대중(DJ) 대통령일 것이다. DJ는 새벽에 일어나 신문 7~8개를 정독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한다. 1990년대 중반 야당 총재 시절에는 동교동 자택에 신문을 읽어 주는 여비서를 두었음 정도였다. 20대 중반의 장욱주라는 이 여성은 낭랑한 목소리로 DJ 곁에서 신문을 소리 내어 읽어 주는 것이 중요한 일과였다. DJ는 바쁜 일정 중에도 극단적일 정도의 방법으로 신문 읽기를 계속해 정확한 정세 분석과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됐다.

요즘엔 종이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얼마 전엔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구독자 감소로 종이 신문 발행을 중단했다. 종간호 1면에는 빨간 고딕체로 ‘인생을 멈추다’(STOP PRESS)라는 문구만 새겼다. 인디펜던트는 사설에서 “오늘 운전기는 멈춰고, 잉크는 마르고, 종이엔 더 이상 접히지 않을 것”이라며 온라인판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오늘(4월7일)은 ‘신문의 날’이다. 독립신문 창간 61주년을 맞아 1957년 제정됐으나 올해로만 60년이 됐다.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줄었지만 종이 신문

의 학습능력 효과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신문을 읽는 학생의 수능 성적이 7점 더 높게 나왔고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대’ 입학 경쟁률도 낮아졌다. 20대 중반의 장욱주라는 이 여성은 낭랑한 목소리로 DJ 곁에서 신문을 소리 내어 읽어 주는 것이 중요한 일과였다. DJ는 바쁜 일정 중에도 극단적일 정도의 방법으로 신문 읽기를 계속해 정확한 정세 분석과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됐다.

요즘엔 종이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